



2016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안지민은 "은퇴 전 400승까지 달성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신있는 ‘찌르기’로 그랑프리 우승 도전”

경정 시즌 최강자를 뽑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대상경정(12월 18~19일) 출전자 24명 중 여자는 이주영(3기, GPP 235점), 박설희(3기, GPP 155점), 안지민(6기, GPP 165점) 3명이다.

이중 안지민은 2007년 경정에 입문했다. 2013시즌 25승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냈지만 출산으로 공백기가 있었다. 2016 시즌에 개인 최다승인 27승(평균 스타트 0.27초, 승률 38%, 연대를 59.2%, 3연대를 71.8%)을 기록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 해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3위, 9월 스포츠경향배 준우승도 차지했다. 2017시즌에는 23승과 쿠리하라배 특별경정 준우승을 거두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시즌도 19일까지 17승을 올리며 개인통산 177승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안지민 선수와의 일문일답.

-그랑프리 대상경정 예선전 임하는 각오는?
“그랑프리포인트를 획득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 예선 출전 기회를 얻어 만족한다.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가장 자신 있는 코스가 있다면?
“2, 3코스가 좋다. 가장 잘하는 찌르기 전개가 편해서다.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휘감기 전법이다. 스타트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 같다.”

-온라인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은?
“피트(출발 타이밍)감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

-은퇴 전까지 최종 목표 승수는?
“꾸준히 체력관리를 해 400승까지 달성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복 없는 성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15년만에 조기졸업... ‘스타 탄생’

지나해 AG 사이클 남자 스프린트서 동메달 200·500m 역대 경륜후보생 최고 기록 경신 임채빈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15년 만에 경북 영주 경륜훈련원에서 조기졸업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25기 경륜후보생 임채빈(28)이다. 2004년 조호성(11기, 은퇴)을 비롯해 38명이 조기졸업을 한 바 있으나 단독 조기졸업은 경륜 역사상 처음이다.

임채빈은 200m 10초32, 500m 32초, 1km 1분06초를 기록해 200m와 500m에서 역대 경륜후보생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1km도 현재 슈퍼특선 강자인 황인혁(21기, 31세, 세종)이 세운 기록 1분06초89와 비슷하다.

임채빈의 기록은 그랑프리 3연패를 달성하며 경륜 대표 스타로 꼽히는 정종진(20기, 32세, 김포)의 훈련원 졸업기록을 능가한다. 아직 데뷔도 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내년 벨로드롬의 최고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량만 놓고 보면 슈퍼특선반(SS반) 못지않은 괴물 신인의 등장에 강자들도 경계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채빈은 200m 스프린트 9초 829, 1km 독주 1분 01초 103의 한국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 침산중학교 시절 사이클 감독에게 발탁되어 이후 대구체고, 금산군청을 거쳤다. 2016년 경륜 종목 포함 아시아 선수권 3관왕, 2016년 사이클 대상을 차지했으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사이클 남자 스프린트 동메달리스트다. 국가대표 시절 경륜의 전설인 조호성(11기, 현 서울시청 감독), 엄인영(4기, 현 국가대표 감독)의 조언을 받았다.

170cm, 72kg로 사이클 선수로서는 왜소한 체격이지만 폭발적인 힘을 자랑한다. 김영호(4기) 수도권 경륜 수석지도관은 “주니어 대표 시절부터 1km 독주 선수였기에 경륜 선수로서 각질(체력적인 특성)을 잘 안다. 순발력, 근지구력이 좋고, 특히 짧은 스피드는 매우 훌륭하다. 잘만 다듬으면 최고의 경륜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임채빈은 “예상 밖에 조기졸업을 하게 돼 너무나 기쁘다. 아마추어는 하루에 4~5개 경주를 치르는 체력이 요구된다. 경륜은 하루에 한 경주만 집중해 순발력, 근지구력, 스피드, 스타트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두 달여 준비기간 동안 훈련을 열심히 해서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라며 조기졸업과 프로 데뷔전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박정우 경륜위너스 예상부장은 “2016년 트랙월드컵 2차 대회 때 현 일본경륜 상금왕 와키모토가 1위로, 임채빈은 3위로 결승에 진출했는데, 결승서 아키토모가 등외로 밀려난 반면에 임채빈은 국내 경륜 최초의 동메달로 기쁨을 주었다”며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30대에 데뷔해 아쉬움을



15년 만에 나온 경륜훈련원 조기졸업생 25기 임채빈이 벌써부터 내년 벨로드롬의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월 현지 적응훈련을 위해 광명 스피돔을 찾은 임채빈.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었지만 20대이고 국제경기 경험도 풍부한 임채빈은 적을 이 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임채빈이 “19기 훈련원 1위였고 특선급 강자인 중·고교 선배 류재열(19기, 33세)이 있는 수성팀에 등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대학생 대상 불법도박 예방교육 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4일 단국대학교에서 법학과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불법도박 시장은 합법 사행산업의 약 5배인 100조 원대로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도박 중독자 가운데 20대는 32.5%로 30대(33.2%)에 이어 가장 많다. 이번 예방교육은 불법도박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점점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불법도박 종류와 피해 사례, 중독자의 고백이 담긴 인터뷰 영상을 통해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소개했다. 28일에는 군산대학교 체육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며, 경륜경정총괄본부 불법신고센터(1899-0707)나 이메일(singo@kspo.or.kr)로 신고하면 된다.

경륜경정본부, 광명시의회와 간담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5일 상호이해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명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고용 확대, 스피돔 부지 내 다목적 고개 편익시설 건립 관련 협력사업, 지역사회 환원사업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광명 스피돔이 시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시의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농구팬 50% “LA클리퍼스, 보스턴 꺾을 것”

농구토토 승5패 13회차 중간집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0일과 21일 사이에 벌어질 미국프로농구(NBA) 11경기과 국내남자프로농구(KBL) 3경기 등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승5패 13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LA클리퍼스-보스턴전에서 홈팀 LA클리퍼스가 50.18%의 지지를 받았다.

배구토토 5개 회차 연속 발매

스페셜 게임 4개·매치 게임 1개 회차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국내 프로배구를 대상으로 배구토토 상품을 연속 발매한다. 이번 주 발행되는 배구토토는 모두 5개 회차로 스페셜 게임 4개 회차, 매치 게임 1개 회차다.

먼저 스페셜 게임은 남자부와 여자부 경기를 대상으로 20일(수)에 펼쳐지는 57회차부터 24일(일)에 열리는 60회차까지 모두 4개 회차가 연속으로 발행된다. 게임방

%는 올랜도(11.05%)에게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KBL에서는 1경기 삼성-모비스전과 14경기 KT-DB전에서 모두 5점차 이내의 박빙 승부가 예고됐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삼성-모비스전에서는 5점 승부가 39.84%로 나타났다. KT-DB전은 41.77%의 참가자가 5점차 접전에 투표했다. 2경기 전 자랜드-KGC전의 경우 홈팀 전자랜드가 62.61%로 우세한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편, 농구토토 승5패 13회차 게임은 20일 오후 6시50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 종료 후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양팀의 5점 이내 접전 예상은 25.18%로 나타났다. 동부지구 전체 1위인 보스턴의 승리 예상은 24.64%로 집계됐다.

동부지구 3위로 신바람을 내고 있는 마이애미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79.05%로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얻었고 필라델피아 역시 동부의 최약체 뉴욕 닉스를 상대로 78.94%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동부 2위 밀워키는 하위권의 애틀란타에게 76.97%의 몰표를 얻었고, 토론토(69.44

식은 홈팀 기준 최종 세트스코어와 양팀의 1세트 점수차를 맞히는 형식이다. 세트스코어 항목은 홈팀 승리인 3-0, 3-1, 3-2와 원정팀 승리인 0-3, 1-3, 2-3 등 여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1세트 점수차 항목은 2점차, 3점차, 4점차, 5점차, 6점차, 7점차 이상으로 제시된다.

57회차 대상경기는 20일 오후 7시 열릴 대한항공-OK저축은행(1경기)전과 GS칼텍스-도로공사(2경기)전이며 58회차는 21일 열리는 삼성화재-현대캐피탈(1경기)전과 흥

국생명-KGC(2경기)전이다.

이어지는 59회차는 23일 2시 KB손보-대한항공(1경기)전과 도로공사-IBK(2경기)전이며 마지막 60회차는 24일 열리는 현대캐피탈-OK저축은행(1경기)전, GS칼텍스-KGC(2경기)전이 준비된다.

배구 매치 55회차는 22일 오후 7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우리카드-한국전력전을 대상으로 팬들을 맞이한다. 배구 토토 매치는 국내 남녀 프로배구 한 경기의 1~3세트 별 승리팀과 각 세트별 점수차(2점차, 3~4점차, 5~6점차, 7~8점차, 9점차 이상)를 맞히는 게임이며 경기 시작 10분전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웹툰 보고 퀴즈 맞히면 상품이 ‘핑핑’

케이토토 ‘도전! 스포츠 인싸왕’ 캠페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건강한 청소년 스포츠문화 만들기 시즌2-도전! 스포츠 인싸왕’ 캠페인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스포츠도박 폐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19일 현재 2만6749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현재 이번 캠페인의 온라인 이벤트에서는 매주 1편씩 게시되는 웹툰 작가 ‘키몽’의 웹툰을 보고 퀴즈를 맞히는 이벤트와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하는 소리가 아닌 것을 맞히는 ASMR 퀴즈가 진행되고 있다.

웹툰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애플 아이패드 에어3(1명)과 자전거(3명), GS25 5천원권(200명)을 증정하며 모든 웹툰을 보고 정답을 맞히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ASMR이벤트의 경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1명)을 비롯해 LG 투인원 노트북(2명), 롯데리아 데리버거 세트(100명),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싱글링 아이스크림(100명)을 증정한다.



또한 4일부터는 이벤트에 참여시 선착순으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근절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키몽 작가의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의 응모 기간은 12월 8일까지로 12월 11일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